
- 제2기 일자리위원회 -

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 제5차 회의결과



인천광역시
Incheon Metropolitan City

(일자리경제과)

「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」 제5차 회의 결과보고

제안의제에 대한 부서 검토보고 및 종합논의 등 「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위원회」 제5차 회의에 따른 결과보고 사항임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방식) '21. 9. 16.(목) 10:00 ~ 11:30 / Zoom 화상회의
- (참석인원) 총 12명
 - 위원(9) : 정○○, 이○○, 심○○, 김○○, 남○○, 서○○, 이○○, 조○○, 홍○○
 - 시(3) : 일자리경제과장(전유도), 사회적경제과장(이철우),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장(송선희)
- (주요내용) 제안의제*에 대한 부서 검토 및 구체화 논의
 - * (의제명)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 / (제안) 심○○ 간사

□ 주요 논의내용

《 제안의제 현황 》

- (의 제 명)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(안)
- (제안배경)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책수요 및 요구는 점차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센터 인력과 조직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
- (제안내용)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전문 컨설팅, 현황조사,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전담팀 구축 ➡ 조직 및 전문인력 확대

①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(안) 논의

< 심○○ 위원 >

- 기본적으로 인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강화되어야겠다고 의견이 모아짐.
- ↳ <이철우 사회적경제과장> 제안해주신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공감함. 이에 예산 증액 및 인력 충원하는 안을 제출함.

< 정○○ 위원장 >

-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본부나 시장 직속으로 올릴 수는 없는지.

↳ < 이철우 사회적경제과장 > 위상을 높이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으로 지원기관이 커지면 저희도 당연히 좋다고 판단함.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이러한 방안들은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음.

< 서○○ 위원 >

○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통합지원센터 및 마을기업 관련 지원센터와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음.

↳ < 이철우 사회적경제과장 > 각 기관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 운영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 같음.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.

< 조○○ 위원 >

○ 부서 검토 의견 상 예산이 12억 9400만 원 정도인데 15억 정도로 올릴 수 없는지.

↳ < 이철우 사회적경제과장 > 더 많이 올리고 싶지만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늘린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 이○○ 위원 >

○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기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데 그런 기초의 네트워킹이나 인큐베이팅 등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광역에 있으면 좋겠음.

< 정○○ 위원장 >

○ 조직 검토안을 보면 사회적경제 전반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센터의 장기 비전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고민할 부서나 업무, 인력이 없음. 또한 각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을 네트워킹 할 주체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여야 효율적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임무도 정확하게 부여되어 있지 않음.

② ‘인천형 종합상사’ 추진 현황 발표 및 향후 방향 논의

< 심○○ 간사 >

- 인천형 종합상사는 작년에 3,3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했지만 코로나 등 외부적 상황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터라 진행이 여의치 않았음. 현재 예산 중 1,500만 원 정도 반납 준비 중.
- 그러나 종합상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 인천의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상사를 만들기 위해 관내 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함. 또한 이를 시와 잘 조절하여 먼저 예산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옳은지 내부적 역량을 먼저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.
 - ↳ <정○○ 위원장> 개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들과 차별화 되는 점을 가지고 인큐베이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.
 - ↳ <조○○ 위원> 하나의 업종만을 상대로 플랫폼 제작 및 지원도 힘든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. 한 분야로의 인천형 종합상사나 업종별 지원 등 타겟팅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함.
 - ↳ <남○○ 위원> 종합상사 구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용역 내지 기초 조사가 탄탄하게 진행된 이후 이 사업을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동의함.

< 조○○ 위원 >

- 인천형 종합상사 역할은 결국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인데 현재 ‘더담지’의 역할도 이와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상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.
 - ↳ <정○○ 위원장> ‘더담지’는 장소성을 가지고 내방객을 받는 구조이지만 종합상사는 투자 컨설팅 및 마케팅까지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념임.

< 김○○ 위원 >

- 요즘 마을기업, 중간지원조직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. 이런 노력을 인천형 종합상사가 구체화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함.

< 정○○ 위원장 >

- 이 건에 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신 분도 계시는 반면 부정적인 분도 계시고 타겟팅을 정확히 해야한다는 말씀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음. 그래서 특별하게 의제를 제안할 것이 없으신 분들은 인천형 종합상사를 주제로 제안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람.

③ 회의결과

- 제2기 일자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상정 안건 결정
 - 「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」

□ 향후 계획

- 제2기 일자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개최 : '21. 10. 08.
- 제2기 일자리 사회적경제분과 제6차 회의 개최 : '21. 11월중